

LNG, 공급부족으로 확보경쟁 치열

수요 급증에 아시아·유럽가격 급등 ... 정유·석유화학 건설 러시로

수입량 감소 등으로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허리케인 시즌과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연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책의 전제조건은 천연가스가 해외에 풍부하기 때문에 북미지역의 생산이 감소해도 해외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천연가스도 원유처럼 해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미국으로 가스를 운송하기로 돼있던 초대형유조선들이 스페인이나 일본 등으로 행선지를 변경하고 있다.

컨설팅기업 PCF Energy의 애널리스트인 니코스 타포스는 “몇 년 전에는 사람들이 LNG를 북미 가스수요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식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LNG가 예상보다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각국이 미국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LNG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 초 1000m³당 7.5달러에서 11.8달러로 급등했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이 생산기업에 제시하는 가격은 몇 달러가 더 높다. 단지 필요한 것은 수송을 위해 천연가스를 화씨 260도 이하로 냉각할 터미널과 수입국에 도착한 후 다시 가스로 만들 수 있는 터미널 뿐이다.

미국 쉬너리에너지는 멕시코만 인근에 4개의 액화가스 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면서 월가의 총아로 부상했었지만, LNG 수입 차질에 따른 회사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때 40달러에 달했던 주가가 5달러로 폭락했다.

몇 년 전 미국 정부 관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쉬너리 및 Sempra Energy, ExxonMobil 등의 에너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터미널 건설부지를 선정하고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천연가스 생산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 해외 수요가 늘면서 미국 LNG를 다른 국가들이 수입했다.

일본의 원전 폐쇄에 따른 LNG 수요 증가나 스페인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차질 등으로 인해 수요가 늘자 전세계 LNG 공급은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생산기업들이 전통적인 장기계약보다 가격이 높은 현물시장에 공급을 늘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UB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10년간 연평균 2.6% 증가했으나 아시아와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같은 기간에 7%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유시설이나 전력, 석유화학공장 등을 건설하는 붐이 일고 있는 점도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LNG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30>